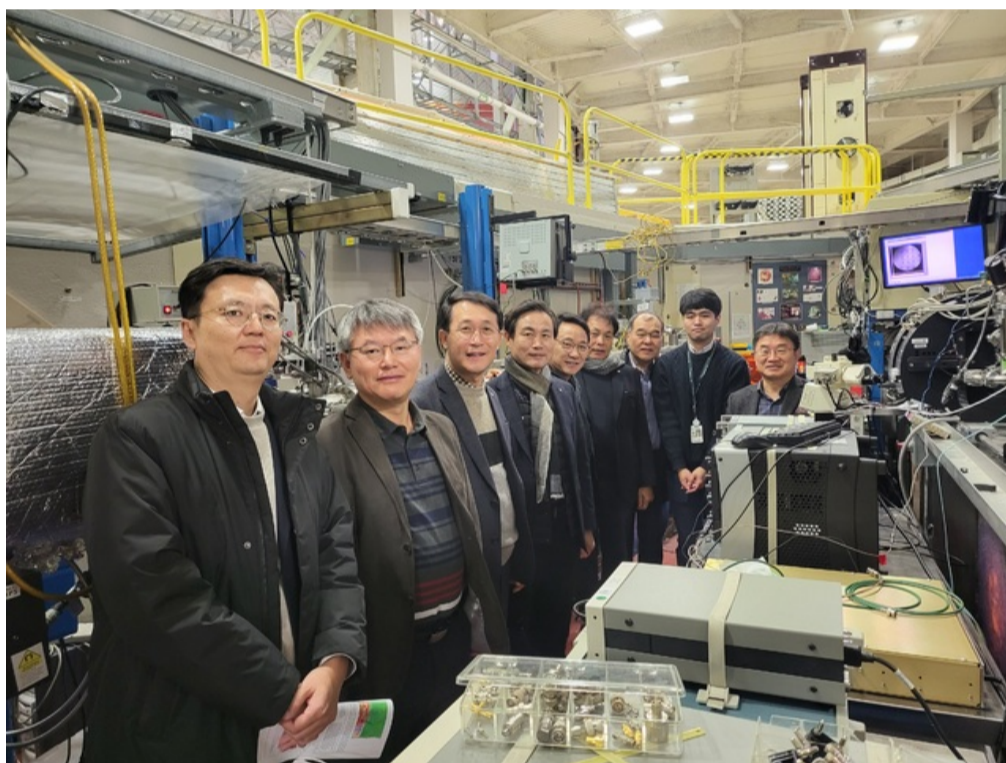


釜山日報

## 거점국립대총장協, 미국서 혁신성장 방안 찾다

윤옥경근 | ① 입력 2023-01-18 17:52 | ① 수정 2023-01-18 17:52

전북대 등 대학·연구기관과 인·물적 교류 협의  
국가거점국립대학(KNU)10사무국 설치 추진도



전북대 등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7개교 총장단이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대제공.

전북대 등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7개교 총장단(이하 총장단)이 최근 미국을 찾아 주요 대학 및 기관 등을 방문하고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분야에서 국가거점대학의 혁신성장 방안을 벤치마킹하고 돌아왔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SFSU)과 아리조나주립대학(ASU) 등을 방문해 거점국립대학과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수 및 학생 교류 등을 합의하는 성과도 거뒀다.

또한 거점국립대 학생들의 교육 질 제고와 공동 사업 발굴에 대한 혁신적 의견 공유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가거점국립대학(이하 KNU)10 사무국' 설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총장단은 방문 기간 중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을 찾아 Lynn Mahoney SFSU 총장을 비롯해 국제담당 부총장 등을 접견하고 거점국립대학 학생들의 어학연수를 비롯한 맞춤형 교육 협력, 그리고 구체적인 등록비용과 숙소 등 세부 사항까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아리조나주립대학을 방문, ASU의 개혁 및 혁신 성과, 비즈니스 스쿨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대학의 대표적인 융합연구 기구인 바이오디자인 연구소를 둘러봤다.

특히 지난 20년간 수행한 ASU의 개혁 성과와 과정을 소개받고 한국 대학들의 개혁 과정에 대한 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KNU10 대학들과 ASU는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 혁신 및 온라인 교육 과정 확대 방안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특히 교수 및 학생을 주기적으로 파견해 ASU와 혁신성과를 함께 공유·평가하기로 해 앞으로 성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노벨상 수상자인 로렌스 교수로부터 시작된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도 방문해 현재 연구원들로부터 시설과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고 이 연구에서 거점국립대학 교수와 학생 파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총장단은 코트라실리콘밸리 및 시스코 본사도 찾아 미래 원격교육 방향과 기술 성장 가능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고 시스코 한국지사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